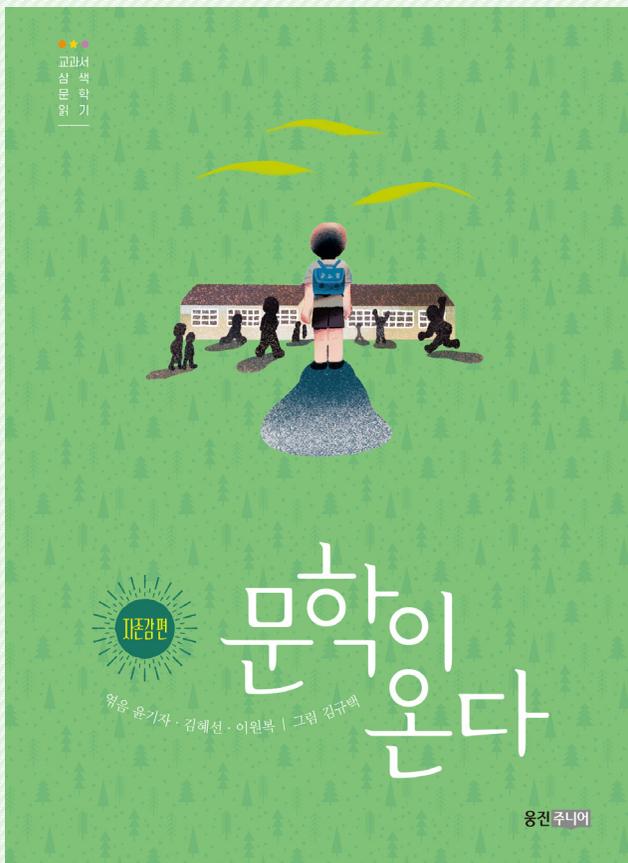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초등학교 6학년

문학이 온다 자존감 편 독서 워크북



윤기자 · 김혜선 · 이원복 역음 | 김규택 그림

■ 책 소개

『문학이 온다』 시리즈는 현직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려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 고전 문학뿐 아니라 외국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감상 수업’과 ‘질문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감상 수업’은 작품에 대한 지식을 알려 주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작품을 읽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상을 제시하는 데 우선하였고, ‘질문 수업’은 독자가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을 읽으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 감정이 이입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자존감 편’은 지나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주요 독후활동



독서전

 **국어 교과 | 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제목, 앞뒤 표지, 머리말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보세요.

1. 책의 앞표지 그림에 나타난 인물과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예상해 보세요.

인물	
배경	

(2~3) 『문학이 온다 : 자존감 편』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문학 작품은 왜 읽어야 할까요?

시를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상력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지닌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접하며 삶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한 미래는 지식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학 작품 읽기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문학이 온다』를 펴내며' 중에서

2. 여러분은 현재 자존감이 높은 편인가요, 혹은 낮은 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문학 작품이 있나요? 작품의 제목과 간단한 내용을 서술해 보세요.

⇨

독서 후

4. 책의 목차를 읽고, 가장 먼저 읽어보고 싶은 문학 작품을 선택해 보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문학이 온다 : 자존감 편』에서 먼저 읽어보고 싶은 작품은 「」이다.

왜냐하면,

책 속으로 ① 시에서 말하는 이(화자)의 의도

※ 다음 「오우가」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오우가

- 윤선도

내 벗이 벗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리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밝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어 지고
풀은 어이하야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슬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九泉)에 뿌리 곧은 줄을 그로 하여 아
노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렇고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의 광명이 너만 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1. 이 시조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으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자연물들의 속성을 통해 화자가 예찬하는 사람의 덕성은 무엇인가요?

⇨

2. 여러분이 벗으로 삼고 싶은 자연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윤선도’ 시인이 되어, 여섯 번째 벗의 속성을 생각해 보고, 벗을 예찬하는 노래를 추가로 지어 보세요.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②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파악하기

※ 소설 「하늘은 맑건만」에는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대립되어 일어나는 ‘내적 갈등’과 인물과 그를 둘러싼 외부 요소가 대립되어 일어나는 ‘외적 갈등’이 모두 나타납니다. 다음 표에 「하늘은 맑건만」에 나타난 주요 갈등을 요약해 정리해 보고, 주인공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주인공 문기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문기가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p>문기는 고깃간에 심부름을 갔다가 거스름돈을 더 받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수만이 시키는 대로 거스름돈으로 공과 쌍안경 등의 물건을 사고 군것질도 한다. 문기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삼촌에게 불려가 꾸중을 들던 문기는 삼촌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고민한다.</p>	<p>삼촌을 실망시킬 수 없어 거짓말을 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공과 쌍안경을 버린 후 남은 거스름돈은 고깃간 주인 집 마당에 던진다.</p>



--	--



--	--



--	--



⇒ 문기가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생각: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불의에 대한 저항

※ 『문학이 온다: 자존감 편』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어사또 춘향에게 호령하되, “너 같은 계집이 수절한다고 관아에서 포악을 부렸으니 살기를 바랄 쏘냐. 죽어 마땅하나 내 수청도 거역하겠느냐?” /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하나같이 명 관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푸른 술 푸른 대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하며, 향단을 부른다. /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 옥 문간에 오셨을 때 그렇게 당부하였는데, 어디를 가셔서 나 죽는 줄 모르는가.” /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춘향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지난밤 거지가 되어 찾아왔던 서방이 어사가 되어 뚜렷이 앉아 있구나.

(나) “히헤, 4학년이 됐다는 아이가 남의 책 보통이나 매다 주고…….” / “참 못난 아이제.” / 모두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뭘, 못난 아이라고?’ 용이는 화가 났습니다. 벌써 고개 위에 다 올라 갔는지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산 위에서 들려왔을 때, 갑자기 용이는 눈앞에 있는 책 보통이들을 그냥 콕콕 짓밟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발밑에 돌멩이 하나가 밟혔습니다. 용이는 별떡 일어나 그 돌멩이를 집어 힘껏 골짜기 아래로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저 밑에 떨어지자, 갑자기 온 산골을 뒤흔드는 소리를 치면서 커다란 뭉텅이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꼬공꼬공, 푸드덕! 그것은 온 산골의 가리אות은 공기를 뒤흔들어 놓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정말 살아 있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1. 「춘향전」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다가, 판소리가 되고 소설로 적힌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때문에 이야기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나 꿈,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윗글 (가)를 참고하여 「춘향전」에 나타난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일지 써 보세요.

⇨

2. 친구들에게 차별을 당하던 용이는 윗글 (나)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

3. 꿩은 과거에 곤은 정신을 지키고 바른말을 하는 선비 정신을 나타내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소설 「꿩」에서처럼 누군가를 괴롭히는 친구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

독서 후

 **핵심으로** ④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념이 있을까

※ 『문학이 온다 : 자존감 편』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다른 학교에서도 다 그랬을 테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때 말로 ‘국어’라던 일본 말, 그 일본 말로만 말을 하게 하고 엄마 아빠 할 적부터 조선말은 아주 한마디도 쓰지 못하게 했다. (중략)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조선말로 말을 하다 선생님한테 들키는 날이면 경을 치는 편이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선생님이 뽀박 박 선생님이었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은 나무라기만 하고 마는 수가 있어도, 뽀박 박 선생님은 절대로 용서가 없었다.

(나) 뽀박 박 선생님은 미국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이 세상에 미국같이 훌륭한 나라가 없고, 미국 사람같이 훌륭한 백성이 없다고 했다. 우리 조선은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미국을 누구보다도 고맙게 여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느니라고 했다. 우리가 혹시 말 끝에 “미국 놈…….”이라고 하면, 뽀박 박 선생님은 단박 붙잡아다 벌을 세우곤 했다. 전에 “텐노 헤이까 바가.”라고 한 것만큼이나 엄한 벌을 주었다.

(다) 서시 -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 윗글 (가)에서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어만 쓰던 박 선생님은 (나)에서 어떻게 변화하나요? 「이상한 선생님의 주인공 박 선생님의 태도가 변화하게 된 이유를 함께 설명해 보세요.

⇨

2. 「서시」가 쓰인 1941년 윤동주 시인은 일본군에 징집이 되느냐,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 유학을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인은 시를 통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신념이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

독서 후

💡 감상과 질문 ① 아름다운이란

※ 시 「아름다운 사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아름다운 사람	바라볼 수도 없고
	- 나태주 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도 없고
아름다운 사람	그저 눈이
눈을 둘 곳이 없다	부시기만 한 사람.

1.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보세요.

⇨

2.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

※ 수필 「네모난 수박」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나는 네모난 수박을 한참 들여다보다 비록 겉모양은 네모졌으나 수박으로서의 본질적인 맛과 향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이 ㉠네모난 수박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의 우리 삶이 둥근 수박과 같은 자연적 형태의 삶이었다면, 지금은 외형을 중시하는 네모난 수박과 같은 인위적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속도는 무척 빠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오늘의 속도를 미처 느끼기도 전에 내일의 속도에 몸을 실어야 한다. 그렇지만 네모난 수박이 수박으로서의 맛과 향기만은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인간으로서의 맛과 향기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3. 글쓴이가 밑줄 친 ㉠처럼 사람들을 ‘네모난 수박’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 「네모난 세상」에서 글쓴이는 삶의 속도와 변화가 빠른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속도와 변화를 따르는 삶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

독서 후

 **감상과 질문** ② 후과 백으로만 세상을 본다

※ 『문학이 온다: 자존감 편』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까마귀 검다 하고 - 이직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곁이 검은들 속조차 검은쓰나
 곁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나) 까마귀 싸우는 골에 - 정몽주 어머니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시샘할세라
 청강(淸江)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다) 비린내라뇨! - 함민복

정성 들여 화장한 거예요

우리들한테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세요
 코 막지 마세요

이렇게
 향기가 다양한 걸
 무조건 비린내라뇨!

우리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미끄러운 피부, 거친 피부
 다 특성에 따라

이건, 정말
 언어폭력이에요
 - 물고기 일동

1. (가)와 (나) 시에서 까마귀의 의미는 각각 어떻게 다른지 써 보세요.

까마귀 검다 하고	
까마귀 싸우는 골에	

2. (다)에서 ‘물고기 일동’은 세상에 다양한 향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비판합니다. 옳고 그름만 있을 뿐, 개성과 다양성은 없는 흑백논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독서 후

💡 감상과 질문 ③ 실패해도 괜찮아

※ 『문학이 온다: 자존감 편』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언제나 조신하고 말 없는 어머니였지만, 기동력 없는 딸이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 눈이 오면 연탄재를 깔고, 비가 오면 한 손으로는 딸을 받쳐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든 채 딸의 길과 방패가 되는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 그뿐인가, 걸핏하면 수술을 하고 두세 달씩 있어야 했던 병원 생활,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던 학교들…….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 자리 끼워 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 내는 세상에 그대로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었고, 그것은 이 세상의 슬픔은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말 없는 가르침이었지만, 가슴속으로 흐르던 ‘엄마의 눈물’은 열 살짜리 딸조차도 놓칠 수 없었다.

(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 정현중

살아 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그래 살아 봐야지

너도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 되어 있는 풀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풀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1.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는 말처럼 (가)의 수필 「엄마의 눈물」에서 어머니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신처럼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때는 언제였나요?

⇨

2. (나)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는 공처럼 되자고 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 여러분이 자신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독서 후

 **창의융합**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 시 「배꼽을 위한 연가5」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배꼽을 위한 연가5 - 김승희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일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그 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1. 옛이야기 속의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려 하지만, 「배꼽을 위한 연가5」에서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청이가 더 효녀인 것 같나요?

⇨

2.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력에 따라 삶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건강한 자존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지 써 보세요.

--

예시답안과 가이드

■ 독서 전

1. (예시답안)

- 인물 : 책가방을 멘 아이가 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 그려져 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학교를 향해 걷거나 뛰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중간에 가만히 멈춰서 있다. 쓸쓸해 보이는 아이의 뒷모습과 문학 작품집의 주제가 '자존감'인 점으로 보아, 주인공들이 실패와 좌절 등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 배경 : 표지의 귀퉁이에는 '교과서 삼색 문학 읽기'라는 단어가 있다. 아마도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 같다. 표지의 배경 전체는 초록색인데, 자연의 조화로운, 안전한 등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은 안전한 곳이어야 하지만, 생각이 다른 다양한 친구들과 대면하게 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배경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와 관련 있을 것 같다.

2. 답안 생략.

(가이드) 자존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성숙한 판단에 의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자존감의 정도를 파악했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경험에 비추어 써 보세요.

3. (예시답안)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작품 「향수」가 떠오른다. 주인공 그르누이는 아무런 냄새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지만,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르누이가 자신의 가치를 '향수'를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증명하고자 한다. 그 책을 읽으며 최근에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학이 온다 자존감 편

4. (예시답안) 『문학이 온다 : 자존감 편』에서 먼저 읽고 싶은 작품은 「감장새 작다 하고」이다. 감장새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굴뚝새라고도 하며 몸집이 작은 새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손이 작아서 악기를 연주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다.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시에서 말하는 이(화자)의 의도

1. (예시답안) 그치지 않고 흐르는 물,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바위, 눈서리를 맞고도 굳게 서 있는 소나무, 욕심이 없고 늘 푸른 대나무, 과묵하게 세상을 밝히는 달. 말하는 이(화자)는 자연물을 통해 외부의 힘에도 변하지 않고 지조와 절의를 지키는 벗의 태도를 예찬하고 있다.

2. (예시답안) 내가 벗으로 삼고 싶은 자연물: 바람

「여섯 번째 벗을 예찬하는 시조」

세상의 먼지와 냄새를 가지고 사라지니

바람이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혼탁할까

주머니 가득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어주니 그를 좋아하노라

❖ 책 속으로 ②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파악하기

주인공 문기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문기가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문기는 고깃간에 심부름을 갔다가 거스름돈을 더 받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수만이 시키는 대로 거스름돈으로 공과 쌍안경 등의 물건을 사고 군것질도 한다. 문기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삼촌에게 불려가 꾸중을 듣던 문기는 삼촌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고민한다.	삼촌을 실망시킬 수 없어 거짓말을 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공과 쌍안경을 버린 후 남은 거스름돈은 고깃간 주인 집 마당에 던진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p>문기는 남은 돈을 주인에게 주었지만, 수만이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는다. 문기는 양심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수만이는 문기에게 남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다.</p>	<p>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주고, 나중에 숙모의 돈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한다.</p>
---	--



<p>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일하는 집에서 쫓겨난 점순이를 보며,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p>	<p>입맛을 잃게 되지만, 점순이를 도와주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p>
--	---



<p>수업 시간에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문기는 담임 선생님 댁을 찾아가려고 결심한다.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뉘그러이 하늘을 쳐다보고 싶다고 생각한다.</p>	<p>용기를 내어 선생님 앞에 앉았지만 입을 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p>
--	---



<p>⇒ 문기가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생각: 문기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수만이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삼촌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이야기하는 문기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p>	
---	--

❖ 책 속으로 ③ 불의에 대한 저항

1. (예시답안) (가)는 춘향이 어사가 된 이몽룡과 재회하는 장면으로,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는 춘향을 통해 당시 조선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꿈꾸었다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문학이 온다 **자존감** 편

2. (예시답안)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꿩의 모습을 보고 용이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이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아버지가 머슴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친구들에게 맞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3. (예시답안) 만약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침묵해서는 안 돼. 잘못된 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누군가도 나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지는 마. 조금씩 용기를 낸다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야.

❖ **책속으로** ④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념이 있을까

1. (예시답안) 소설 「이상한 선생님」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와 독립 직후이다. 박 선생님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지배할 때는 일본을 찬양하고, 광복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을 때는 미국말을 열심히 공부하며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인물이다. 박 선생님이 친일 행위를 하다가 친미파로 변신해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태도는 그의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잘 나타낸다.

2. (예시답안) 어느 상황에서건 반드시 옳은 신념은 없다고 생각한다. 굳게 믿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하지만 나의 신념만 옳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는 힘들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맹신으로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거의 유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는 잘못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 **감상과 질문** ① 아름다움이란

1. (예시답안)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모두 다를 것이다. 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술의 역사를 보면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전통을 거부하며 새로운 ‘미’의 기준을 만들어간다. 누군가 추하다고 생각하는 버려진 냄비도 예술의 재료가 되며, 깨진 도자기 조각도 아름다운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 또한 그 기준이 다양하

예시답안과 가이드

다. 누군가는 평정심을, 누군가는 역동성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시답안)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은 여성의 자유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박차정 의사이다. 그녀는 총을 들고 일본군과 끝까지 싸우다 1944년 광복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독립운동가 중에 여성은 별로 알려진 분이 없는데,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앞장섰던 점을 존경한다.

3. (예시답안) 현대인들 또한 외형을 중시하는 네모난 수박과 같은 인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예시답안)

- 세상의 속도와 변화를 따르는 삶이 좋다고 생각한다.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보다 양질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화는 필요하며, 새로운 삶의 질서와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보의 과정이다.

- 세상의 변화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천천히 나의 속도대로 사는 삶이 좋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를 따른다고 해서 개개인의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나친 물질주의는 인간으로서의 본래 가치를 잃게 할 것이다. 타인을 좇아 잘 알지도 못하는 삶을 모방하기보다는 천천히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감상과 질문 ② 흑과 백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1. (예시답안)

까마귀 검다 하고	고려 말 조선의 개국에 참여한 이직이 쓴 시조이다.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백조와는 달리, 까마귀는 오히려 더 깨끗하고 나라를 바르게 하려는 무리이니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	---

문학이 온다 자존감 편

까마귀 싸우는 골에

까마귀는 조선을 건국하려는 무리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던 백로와 대비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다.

2. (예시답안) 흑백논리란 선이나 악, 옳음 또는 그름 등 극단적인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흑백논리에 빠지게 되면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달린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자신과 타인의 생각에 대해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인간에게는 혁명일 수 있지만, 자연에게는 파괴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흑백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옳은지 의심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감상과 질문 ③ 실패해도 괜찮아

1. 답안 생략.

(가이드) 누구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른들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실 때도 있지만, 말없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부모님께 또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2. (예시답안)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종로에 있는 한옥마을의 경우 재개발을 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낙후되었지만, 오히려 도심 한복판에서 한옥을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어. 실패 후에 낙담하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 창의융합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1. (예시답안) 「배꼽을 위한 연가5」에서 심정이는 인당수에 빠지는 대신 어머니에게 점자책

예시답안과 가이드

을 사 드리고 읽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상에 인당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약자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방식으로 부모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배꼽을 위한 연가5」의 심청이가 진정한 효녀라고 생각한다.

(가이드) 옛이야기 속에서 겨우 열다섯 살의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집니다. 딸에게 일방적인 ‘효’를 강요하는 것은 아버지인 심 봉사의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청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요? 그리고 심청이가 정말 자신이 원해서 부모를 위해 목숨을 버렸을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성의 정절과 효를 강요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심청이’와 같은 희생적인 주인공을 만들어 낸 것 아닐지 생각해 보세요.

2. (예시답안)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자존감 또한 지나치게 높으면 자만하는 사람이 되고, 지나치게 낮으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한지分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떳떳한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나답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응진 주니어

값 14,000원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동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